



연중 제14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바이러스 대유행(?)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동체 전례와 모임을 전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왔습니다. 텅빈 성전, 주님이 묻혔던 텅빈 무덤을 바라보며 부활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공허한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이러한 여파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당분간 코로나19 유행은 널뛰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유행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저는 그 원인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식 명명에서 그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세상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곳곳에서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이 사는 생활환경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바이러스의 환경을 지나치게 침범한 나머지 생명체인 그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숙주인 인간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도 새로운 숙주인 인간의 몸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변이를 일으키며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 전염 초기에 전문가들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한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정식 명칭은 현재 변이를 일으킨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가 2019년에 발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이러한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러스25’ 등으로 말입니다.

‘데이비드 콰먼’의 책 「인수공통-모든 전염병의 열쇠」를 번역한 강병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라는 말 이전에 ‘인간 대유행’이 먼저라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워낙 자연의 영역을 마음대로 침범하여 지구환경을 파괴한 나머지 하나의 생명체인 바이러스도 살아남기 위하여 또 다른 숙주인 인간을 선택하여 그 생명을 유지코자 하는 것이 바이러스 유행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텅빈 성전, 텅빈 무덤을 바라보며 느낀 공허함을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 텅빈 공허함을 우리의 또 다른 희망의 징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는 나날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재영 바실리오 신부 | 망경동본당 주임



제 1 독 서 2역대 24,18-22
화 답 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 2 독 서 로마 5,1-5
복 음 마태 10,17-22

주일 전례

15살의 복자와 인터넷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교황청 시성성은 로마 교황청의 9개의 심의회 중 하나로서, 교회의 성인 후보자들이 ‘탁월한 덕목’의 진술과 기적 심사를 통해 복자품을 거쳐 성인품에 오르는 전 과정을 감독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교황님께 복자 또는 성인의 승품을 요청합니다.

지난 6월 17일, 교황청 시성성 장관 조반니 안젤로 베추 추기경은 아주 특별한 인물의 시복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 아큐티스(Carlo Acutis, 1991~2006)입니다. 놀랍게도 카를로 아큐티스는 런던 태생 이탈리아인으로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가운데에서 인터넷에 대한 열정을 지닌 10대 청소년입니다.

그는 전 세계의 성체 기적을 기록하고 백혈병으로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모두 목록화하였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 성체성사에 관한 깊은 헌신과 그로부터 얻은 영사적 기쁨을 자신의 컴퓨터 기술에 접목하여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의 열정에 반하였고, 그의 시복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연기되어오다, 마침내 시성성 베추 추기경이 오는 10월 10일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서 시복식을 거행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카를로 아큐티스의 모범적 신앙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작은 소년이었지만 성체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빠졌으며, 자모이신 성모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추기경은 신앙의 전파와 관련한 카를로의 탁월한 재능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신앙을 주제로 컴퓨터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체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카를로는 충만하게 신앙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이 신앙의 모범을 소개하고 그 은사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추기경은 덧붙여 “카를로는 ‘나는 주님과 교황과 교회를 위해 나의 고통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나는 지옥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당에 가기를 원합니다.’ 15살에! 이 작은 소년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고 증언합니다.

카를로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짜노의 증언에 따르면,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카를로는 대단히 컴퓨터에 능숙했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알고 있었으며, 컴퓨터와 관련한 대학 교재를 읽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러나 카를로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카를로는 이 매체를 채팅이나 게임과 같은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지적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였고, 성체성사의 기적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며, 세상을 두루 다니며 이를 전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카를로는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며, 성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오늘날 비대면 시대에 요구되는 신앙 생활을 이미 이 어린 소년을 통해 실현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찬미 받으소서!



성유축성미사(사제 성화의 날)

성유축성미사가 6월 19일 오전 11시 양덕동성당에서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성목요일 거행되던 성유축성미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올해는 사제 성화의 날로 옮겨진 것이다. 이날 미사에는 사제평의회 회원들과 평신도 대표만 참석하였다. 배기현 주교는 강론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목을 제시하였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이들은 “비껴가는 사람”이었음을 대조시키며, 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인 사목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6월 25일 오후 7시 30분 사파동성당에서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를 주관한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위원장 하춘수 레오 신부는 강론에서 남과 북이 “서로 총부리 거두고 한 발자국 다가서서 손 맞잡는” 평화는 정의의 실현으로서 이 땅에 사는 “주인이 주인으로” 서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전협정에서 종전선언으로 나아가고, 남북이 맺은 선언과 약속들을 서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목공제회 신학생 후원금 전달



교구 사목공제회는 신학생들을 위해 2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사목공제회는 봄 사제총회 즈음 공제회원들을 위한 기념품을 마련하였는데, 올해는 기념품 대신 신학생 후원금으로 지원하였다. 6월 19일 양덕동성당에서 성유축성미사 때 사목공제회 이사장 정진국 바오로 신부가 공제회원들을 대표하여 성소국장 정연동 세바스찬 신부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전교불모지 통영에 불길을 당겼던 태평동성당

김형진 레오

전설처럼 내려오는 기적의 터

태평동성당은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긴 역사만큼 많은 사연을 안고 있지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1945년 말, 일본강점기 시절에는 성당에도 일장기를 게양하게 되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일장기를 더 이상 게양할 필요가 없어 본당 신부는 그날따라 그 자리에 교황기를 걸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던 '두렉'이라는 미군 군종 신부가 이 교황기를 알아보고 산비탈 신정성당을 방문하게 된다. 미사가 끝난 후 군종 신부와 본당 신부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성당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느냐?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적산가옥이 많을 것이니 아무것이나 골라잡으면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래서 현재의 성당 자리에 있던 일본사찰 '명증사'를 인수하고, 절 내부만 개조하여 1969년까지 성당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교황기가 새 성전을 선물한 것이었다.



일본식 절을 사용한 옛 성당

현 태평동성당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순교자의 터

뮌텔 주교가 기술한 「치명일기」 817편에 보면, “이 요한 회장은 본래 동래 장교였는데, 울산에서 다른 교우들과 동래 포졸에게 잡혀 십칠 일 있다가 후에 ‘통영’으로 가서 8명이 참수 치명하니 나이 팔십 세라.”라고 적혀있다. 참수치명 당한 곳의 기록이 없어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옛 통제영 울타리 안에 있는 태평동성당은 그분들이 치명 당한 성지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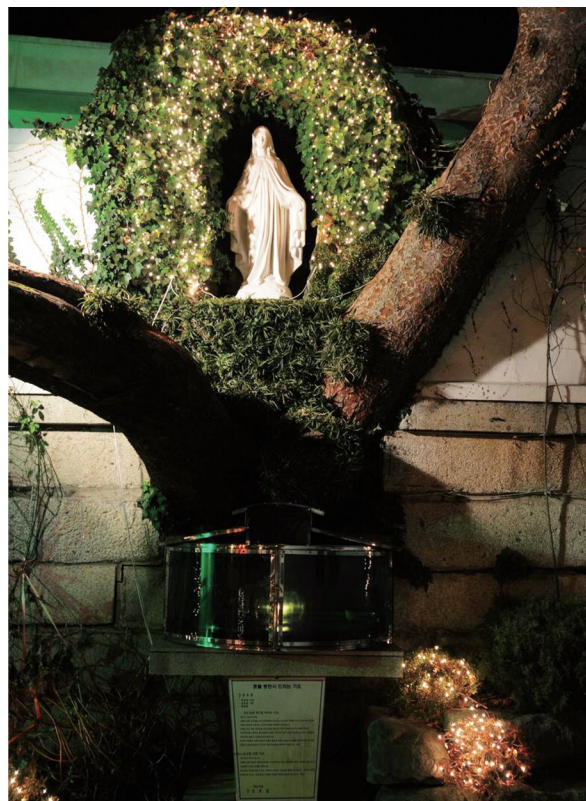
또한, 제주도 함덕리 출신 김기량(펠릭스 베드로) 복자는 1866년 음력 9월에 동료 4명과 함께 박하유를 팔기 위해 통영의 계섬(지금의 산양읍 풍화리의 옛 지명)에 상륙하여 마을로 들어섰다가 낮선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의 신고로 당

포만호영(산양읍 삼덕리 당포에 있었던 옛 수군 진영)의 포졸들에게 체포된다. 그들의 배 안에서 천주교 서적과 성물이 발견됨으로써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 통제영 본영으로 압송되었다. 그가 곤장 60대를 맞고도 죽지 않고 살아나자, 장살형杖殺刑만으로는 그들 5명의 목숨을 쉽사리 끊을 수 없음을 알고 그해 음력 12월(양력 1867년 1월) 교수형에 처했다. 기록에는 없지만,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옥중에서 교수형으로 처해졌다고 하니, 그 장소는 바로 태평동성당 뒷부분 통제영 영지이다. 태평동성당이 성지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태평동성당의 보물

태평동성당으로 올라가는 비스듬한 경사길에는 수령을 짐작하기 어려운 느티나무 고목이 신자들을 마중하고 있다. 1978년 이 고목 가지 사이에 동굴 모양의 석굴을 만들고 순백의 '성모상'을 모셨다. 그리하여 느티나무와 성모상은 태평동성당을 상징하는 친근한 기도처가 되었다. 지금은 좁고 위험한 언덕길에서 성모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어려움이 있자, 성당 마당에 새로운 '성모자상'을 건립하였다. 한 성당 마당에 두 분의 성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지만, 고목 가지 위의 성모님은 그만큼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보물 성모님이다.

두 번째 보물은 종탑에 걸려 있는 종이다. 이 종은 해방 후 불하받은 일본식 절이 이제는 성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종이다. 그 후 새 성전이 완성되고 필요성이 없어진 종은 관할 섬 지역의 신설 공소마다 옮겨 다니다가, 2004년 본당 종탑으로 되돌아왔다.



성당 입구 고목 위의 성모님

세 번째 보물은 옥지공소의 '도유화성당'이다. 도유화란 그림을 그려 불에 구워 만든 타일을 벽면에 이어붙이는 것이다. '블루크로스'라는 청십자가 우뚝 솟은 도유화성당 옥지공소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곳에서 입소문을 타서 이제는 꽤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다.



도유화성당 - 옥지공소

태평동성당의 저력

태평동성당은 1929년 5월에 설립되었는데, 당시 이름은 신정성당이였다. 해방되고 나서 충무성당으로 개명하였다가, 1985년 대건성당을 분가시키고 이름을 '태평동성당'으로 바꾸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통영은 본당이 설립되고 나서 근 60여 년 동안 전교 불모지였다. 바닷가의 미신이 강한 탓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

다가 본당 소속 '대건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반란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시도한 것이 통영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톨릭 사상 강좌'였다. 80년대 초, 당시만 해도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큰 시절이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함세웅 신부, 정호경 신부, 두봉 주교 등을 모셔서 실시한 강연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성전뿐만 아니라 강당, 마당까지 당시로는 획기적인 스크린 화면을 동시에 띄우는 강의가 몇 차례 이어졌다. 그 후에 일 년에 2번, 한 번에 6~70명씩 입교식을 치렀다. 심지어는 60명씩 두 개 반을 편성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 불길로 불과 이삼 년 후인 1985년에 통영지역의 두 번째 성당인 대건성당을 봉헌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또다시 북신동성당을 헌당하게 된다.

역사가 오랜 성당이 그렇듯이 지금은 노령화가 빠르게 다가오는 성당이지만, 올해 새로 부임한 23대 신명균 마르티노 주임 신부의 젊은 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교구/본당

임마누엘 장학회 정기이사회

일시: 7월 10일(금) 11:00

장소: 교구청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시: 7월 18일(토) 13:00~19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통독범위: 티모테오1·2서, 티토서, 필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1·2서

대상: 성경에 관심 있는 청년

참가비: 1인 6만 원

신청: 7월 12일(주일)까지,

선착순 20명 마감(전원 1인실)

문의: 청년부 055·249·7065

46차 창세기 연수

일시: 8월 16일(주일) 14:00~20:3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일시: 8월 21일(금) 16:00~23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2번의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서시몬(시몬) 신부

대상: 창세기 성경그룹공부를 수행하고 연수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

문의: 임기호 보니파시오 010·6245·4967

파견미사: 8월 23일(주일) 14:00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야고보 아바사와 함께하는 자
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1박 2일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안내

관상적 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있으신 분

대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신자

문의: 010·8525·1150

성골롬반 외방 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모집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장소: 골롬반 평신도 선교사 센터(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항공예약 포함하여 접수가능)

일정: 7월 19일~21일, 7월 25일~28일(우도), 8월 1일~4일

(우도), 8월 6일~9일(우도), 8월 12일~15일(우도),

8월 17일~19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기 타

제주 성지 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시: 7월 24일~26일, 7월 28일~30일,

8월 7일~9일, 8월 24일~26일

장소: 제주성지 7곳 (성지해설)

지도: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바오로 수도회)

문의: 064·805·9890

SM 수맥홍(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제주성지순례 3박4일 28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40년 전통 <팔보효소> 생활절식·효소단식 ▶미·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헐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정 ▶지리산 산청 발효·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49만원 (20년 10월/ 21년 4월) 070-4086-0207 www.catravel.co.kr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미디어국 055)249-7072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노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의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일시: 7월 27일~29일, 7월 31일~8월 2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용어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
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주일 17:00

문의: 010·5686·1362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울지마톤즈〉 후속 영화 ‘부활’

영화 ‘부활’은 〈울지마톤즈〉 후속 영화
로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으로 자란 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담
은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 개봉일시:
7월 9일(목)

● 상영관:
전국 CGV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
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
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
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7월 12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0 여름김장 나누기

부탁해!! 여름김장

지난해 기부에 동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에 놓여 더 힘겨운 우리 이웃을 위해 올해도 여름김장을 담급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김치3중셋트를 선물해 주세요.

단기모금기간 : 7. 17.(금) 까지

후원 계 좌 : 경남 580-07-0011610 성산복지관 (입금시 김장+입금자명)

※ 후원시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 문 의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부탁해!!

여름김장

모금기간 : 2020.07.17까지

건강이 염려되는 복지사각 이웃에게
만원의 행복으로
김치3중셋트를 선물하세요

후원계좌 : 경남은행 580-07-0011610
입금시 : 김장+입금자명
(후원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282-3737)



캄보디아 뽀이뻬트 소식

캄보디아의 서쪽 끝에 태국 국경을 접하고 있는 뽀이뻬트라는 궁핍한 도시가 있어, 그곳 어린이들과 중고생들을 위해 우리교구에서는 2년 전부터 신부님들의 미사예물 일부를 할애하여 매년 3만 달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근황을 알리는 소식이 있어 교우들께 전해드립니다.(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전기의 막바지에 이른 캄보디아는 숨 막히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3월 15일부터 뽀이뻬트 속한 반티민은째이주 학교들은 초·중·고·대학까지 모두 휴교에 들어갔고 이후 캄보디아 전체가 휴교상태입니다. 뽀이뻬트는 태국과의 국경이 닫히면서 태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거 귀국하고, 카지노 영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지 않고 사망자도 없긴 하지만 코로나로 정지된 사회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이들의 삶이 많이 힘겨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장학생들과도 예전처럼 모임을 할 수 없어,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며칠에 걸쳐 각기 다른 시간대에 가족들을 불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스텝들은 마을을 방문해 장학생 가족들과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숲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거나, 먹을거리를 찾아 어렵게 지내고 있고, 고향으로 돌아간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인 아이들이 오랜 휴교 상태를 지나면서 학업을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여, 스텝들이 아이들을 방문해서 학업에 대한 연속성을 잃지 않게 하려고 소규모 과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아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11월까지 학교는 계속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더러 있지만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7월에는 태국 국경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완치되었다는 공식적인 발표 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북적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조금 불안한 마음도 함께 듭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되어 아이들과 함께 모여 웃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 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2020년 5월, 캄보디아 뽀이뻬트에서 이미란